

이종모 상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

제5판 추록

(2023년 08월 21일 기준)

이종모 상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6판 - 추록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3년 08월 21일 기준)

2022년 10월 19일 발행된 상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5판에서 개정판(제6판, 2023년 08월 25일 발행)의 추가된(보완) 내용과 구판(제5판) 내용상의 오타자 등을 정리한 추록(정오포함)을 게재합니다. 문제 교체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위치	교체 및 추가사항
p. 8 44번 지문 내용 수정	<p>044 □□□</p> <p>사실상 폐업시 양도 가능 ★</p> <p>「상법」 제25조 제1항은 “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. [변23]</p>
p. 16 89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일방적 상행위에 상사시효 적용</p> <p>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. [변23]</p>
P. 20 115번 지문 내용 수정	<p>115 □□□</p> <p>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 ★★</p> <p>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. [변23]</p>
p. 51 291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자기주식 특정목적은 법정된 것만</p> <p>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,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「상법」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 [변23]</p>
p. 65 375번 기출 수정	<p>375 □□□</p> <p>총회결의와 후보자의 승낙으로 ★★</p> <p>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에 따른 회사와의 임용계약의 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, <u>대표 이사의 청약이 없어도</u> 주주총회결의와 후보자의 승낙이 있으면 취득한다. [변19,23 유사]</p>
p. 79 447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직접 소제기시 청구 추가가 가능한 범위</p> <p>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「상법」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. [변24]</p>

p. 81 459번 기출 수정	<p>459 □□□</p> <p>판결의 대세적 효력 ★</p> <p>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. [변16, 23]</p>
p. 82 469번 지문 내용 수정	<p>469 □□□</p> <p>의사정족수에서 산입, 의결정족수에서 제외 ★</p> <p>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,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. [변23]</p>
p. 82 470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감사위원 해임은 2/3의 결의</p> <p>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,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. [변23]</p>
p. 85 487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487 □□□</p> <p>대표권 제한, 선의·무중과실</p> <p>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, 선의의 제3자는 「상법」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(「상법」 제389조 제3항),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「상법」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,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. [변23]</p>
p. 86 493번 기출 수정	<p>493 □□□</p> <p>실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도 적용</p> <p>「상법」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 [변15, 23]</p>
p. 90 518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상장사는 해임시에도 의결권 제한 ★</p> <p>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(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)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,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[변23]</p>
p. 98 566번 기출 수정	<p>566 □□□</p> <p>현물로 배당할 수도 있음</p> <p>회사의 <u>정관</u>으로 <u>금전</u>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. [변13, 23유사]</p>

4 이종모 상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

<p>p. 98 569번 기출 수정</p>	<p>569 □□□</p> <p>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</p> <p>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,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. [변23유사]</p>
<p>p. 98 569번 밑 지문 내용 추가</p>	<p>000 □□□</p> <p>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</p> <p>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,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. [변23]</p>
<p>p. 102 591번 밑 지문 내용 추가</p>	<p>000 □□□</p> <p>분할시 연대책임은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포함</p> <p>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, 이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. [변23]</p> <p>000 □□□</p> <p>분할로 책임을 구분하면 채권자보호절차</p> <p>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甲회사는 「상법」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. [변23]</p> <p>000 □□□</p> <p>단순분할시 주매청 인정되지 않음</p> <p>단순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「상법」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[변23]</p> <p>000 □□□</p> <p>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시 연대책임</p> <p>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,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 [변23]</p>
<p>p. 109 626번 기출 수정</p>	<p>626 □□□</p> <p>책임을 부정하려는 발행인이 입증 ★★</p> <p>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,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. [변15, 23유사]</p>

p. 109 627번 기출 수정	<p>627 □□□</p> <p>백지가 보충되어야 상환청구권 보전 ★★</p> <p>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,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. [변12, 23유사]</p>
p. 110 631번 기출 수정	<p>631 □□□</p> <p>백지인 상태로도 시효는 중단됨 ★★</p> <p>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, 발행일 2014. 6. 20., 지급기일 2014. 10. 20.,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, 발행지 서울특별시,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, 제1배서인 丁,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.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<u>시효중단의 효력</u>이 있다. [변15, 23유사]</p>
p. 110 632번 기출 수정	<p>632 □□□</p> <p>남용되어도 원래 수여한 범위에서는 책임 ★</p> <p>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,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. [변12, 23유사]</p>
p. 110 633번 및 지문 내용 추가	<p>000 □□□</p> <p>백지어음도 인적항변 절단</p> <p>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,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. [변23]</p> <p>000 □□□</p> <p>백지보충권 소멸시효 3년</p> <p>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. [변23]</p>
p. 113 644번 지문 내용 수정	<p>644 □□□</p> <p>기한후배서는 배서 시점을 기준으로 ★</p> <p>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,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,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. [변23]</p>
p. 113 648번 지문 내용 수정	<p>648 □□□</p> <p>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음 ★★</p> <p>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. [변23]</p>
p. 114 649번 기출 수정	<p>649 □□□</p> <p>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 ★</p> <p>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[변14, 23]</p>

6 이종모 상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

<p>p. 122 689번 위 지문 내용 추가</p>	<p>000 □□□</p> <p>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 가액 또는 협의</p> <p>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며,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,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</p> <p>[변23]</p>
---	--